

유교가 베트남에서 국가이념으로 성립되는 과정

The Road to Confucianism
as a State Ideology in Vietnam

유인선*

In Sun YU

I. 서론

1427년 20년 동안의 명 지배로부터 벗어난 레 리이(Le Loi, 黎利)는 이듬해 제위에 올라 레 왕조(黎朝, 1428-1788)를 세웠다. 새로운 왕조의 성립은 이전 시대에 흔히 있었던 단순한 역성혁명이 아니라 베트남 역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앞선 왕조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보호했던 것과는 달리 레 왕조는 유교, 특히 신유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았다. 이제까지 전근대 베트남의 유교에 대하여는 논의가 적지 않지만,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배이념으로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은 한 무제 때인 기원전 111년 남 비엣(Nam Viet, 南越)의 점령 이래 중국과 직접 접촉하면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다.¹⁾ 그러나 중국문화의 영향은 14세기 말 쩐 왕조(陳朝, 1225-1400)가 멸망할 때까지는 산발적이었다. 예컨대, 유학이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 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yuinsun@snu.ac.kr

1) 전근대 베트남인들은 남 비엣을 베트남 왕국으로 간주하였으나, 현 하노이 사학계는 남 비엣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다. (Yu 2006: 48-50; Nguyen Quang Ngoc 2000: 34-36).

기원 후 3세기 전반 자오 찌(Giao-chi, 交趾) 태수였던 사섭(士燮; 베트남어로는 Si Nghiep) 때였다. 그는 젊어서 후한의 서울 낙양(洛陽)에 가서 유학을 공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전파하는데 열심이지 않았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사섭이 외출할 때마다 호승(胡僧), 즉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승려들 수십 명이 향을 피우며 그의 수레를 따랐다고 한다(『三國志』 1983, 권 49: 1191-1192; 『전서』 상 1984: 130-133; 『大越史略』 1987: 30). 그때 자오 찌에서는 유교보다 불교의 영향이 더 컸다.

사실 당시 자오 찌에 오는 대부분의 중국 관리들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보다 베트남인들로부터 남방의 희귀한 물자들을 착취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2세기 말 자오 찌 자사였던 가종(賈琮)은 말하기를, “자오 찌는 진귀한 보물이 많다. 부임하는 자사는 청렴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리하여 이민(吏民)이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했다(CL 2002: 441; 『전서』, 상 1984: 129).

베트남 유학은 당 지배기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 이때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아이 찌우(Ai Chau, 愛州) 출신의 중국인 이민 후예인 크엉 쑹 푸(Khuong Cong Phu, 姜公輔)와 크엉 쑹 푸크(Khuong Cong Phuc, 姜公復) 형제였다. 이들은 당나라 서울 장안에 가서 과거에 합격하여 당 조정의 고위직에 올랐으며, 시문으로도 이름을 날렸다(『舊唐書』 1997, 권 138: 3787-3788; 『新唐書』 1997, 권 132: 4831; 『全唐文』 1983, 권 446: 4445; 『전서』 상 1984: 160). 그렇지만 이들 형제는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였다. 845년 당 관리의 말에 의하면, “안남은 진사합격자가²⁾ 8명도 채 안 되었으며, 명경과(明經科)에서조차도 10명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CL 2002: 5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실제로 당의 장안에까지 간 응시자는 많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당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중국고전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중국이 지배하던 전 시기를 통해 유교보다 훨씬 영향력을 행사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섭 치하의 자오 찌에서 불교는 지배계층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6세기 중반 양(梁)의 지배에 저항했던 리 본(Ly Bon, 李賁)도 불교에 대해 호의적

2) 이곳에서 말하는 진사(進士)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과급제에 해당한다.

이었으며, 리본의 저항을 이어받은 리 팻 뜨(Ly Phat Tu, 李佛子)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선종의 일파인 비니다루치(Vinitaruci)가 자오 찌우(Chiao Chau; 交州)³⁾ 처음 들어 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남인도의 브라흐만 출신인 비니다루치는 580년 자오 찌우에 와서 롱 비엔(Long Bien, 龍編)에 있는 법운사(法雲寺)에 들어가 불경을 번역하며 선을 가르쳤다(Nguyen Cuong Tu 1997: 42-43, 164-165; Tran Van Giap 1932: 235-236). 불교는 당 지배기에 더욱 융성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고승들이 베트남에 와서 정착하든가 또는 인도로 가는 순례 길에 베트남에 잠시 머무른 때문이었다.

백여 년 전에 중국학의 대가인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éro)는 기원 42-43년 한의 장군 마원(馬援)의 정벌은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이유는 그의 정벌로 중국 사상과 사회조직이 소개됨으로써 베트남이 중국문명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베트남역사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중국적 사상과 제도들은 중국지배가 끝난 지 한참 지나서야 받아들여졌다고 믿는다(Taylor 1981: 160). 실제로 독립을 이룩한 후 베트남 지배자들은 통치상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이고 중국고전에 기초한 과거를 통해 관리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10세기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부터 15세기 초 레 왕조의 성립까지 유교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레 왕조 이전의 유교

키스 테일러(Keith Taylor)는 주장하기를, “15세기까지 불교왕국인 다이 비엣(Dai Viet, 大越)⁴⁾ 중국보다는 동남아시아 세계의 지적영역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Taylor 1981: 160). 불교가 딘 왕조(丁朝, 966-

3) 자오 찌는 군(郡)의 명칭이고, 자오 찌우는 한이 남 비엣 땅에 설치했던 9개 군을 총괄하는 주(州)의 이름이다.

4) 다이 비엣은 딘 왕조(丁朝)로부터 레 왕조 때까지 베트남의 국호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딘 왕조의 국호는 다이 꼬 비엣(Dai Co Viet, 大輶越)이었으나 리 왕조(李朝) 때인 1054년 다이 비엣으로 바뀌었다.

980), 띠엔 레 왕조(前黎朝, 980-1009), 리 왕조(李朝, 1009-1225) 및 쩐 왕조(陳朝, 1225-1400) 동안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립 후 처음으로 황제를 칭한 딘 보 린(Dinh Bo Linh, 丁部領)은 971년 관리, 불승 및 도사(道士)들에 대한 품계(品階)를 도입했다. 주목한 것은 승려인 응우 쩐 르우(Ngo Chan Luu, 吳眞流)를 광월대사(匡越大師), 곧 ‘월을⁵⁾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사’로 임명했다는 점이다(『전서』 상 1984: 181; 『大越史略』 1987: 43; Nguyen Cuong Tu 1997: 111). 이는 불승이 딘 왕조에서 상당한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띠엔 레 왕조의 창건자인 레 호안(Le Hoan, 黎桓)도 광월대사와 팟투언(Phap Thuan, 法順) 같은 몇몇 승려를 매우 존경하여 이들에게 정치적·외교적 책임을 맡겼다(『전서』 상 1994: 191-192; Nguyen Cong Tu 1997: 111, 170-171). 이는 아마도 이들 승려가 출가하기 전 유학교육을 받아서 유학자들처럼 정치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상 광월대사는 어린 시절 유학을 공부하고 성년이 된 다음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Nguyen Cong Tu 1997: 111). 응우옌 끄엥 뜨는 이러한 예로 보아 당시는 유학과 불교가 동시에 융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Nguyen Cong Tu 1997: 368 n.52).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유학이 아니라 불교를 선호했으며 학자 출신 관리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러한 증거는 레 호안의 시호가 정해지지 못해 다이 하인(Dai Hanh, 大行) 황제로⁶⁾ 불리어지고 있는데서 볼 수 있다. 1272년 『대월사기』(大越史記)를 편찬한 레 반 흐우(Le Van Huu, 黎文休)는 이를 한탄해서 말하기를, “아들은 불초(不肖)하고 이를 보필할 유신들도 없었다.”라고 했다(『전서』 상 1984: 197; Whitmore 1976: 195). 레 호안과는 달리, 통치기간이 와조(臥朝)로 불리는 아들 롱 딘(Long Dinh, 龍鋌)은 승려들은 희화했고, 그 결과 그는 승려들의 지지를 잃어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다.

전전지휘사(殿前指揮使)였던 리 쑹 우언(Ly Cong Uan, 李公蘊)이

⁵⁾ 월은 딘 왕조의 국호인 다이 꼬 비엣(Dai Co Viet, 大瞿越)을 의미한다.

⁶⁾ 황제가 사망하면 시호가 정해질 때까지 다이 하인 황제로 불린다.

유력한 승려인 반 하인(Van Hanh, 萬行)의 도움으로 띠엔 레 왕조를 대체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니, 이가 리 타이 또(Ly Thai To, 李太祖)이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불교를 열심히 보호하여, 치세 중에 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했다. 이들은 또한 고승들에게 국사(國師)의 칭호를 주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CL 2002: 501; 『전서』 상 1984: 251; 川本 1976: 271, 274). 리 왕조 군주들의 불교신앙에 대한 다른 예로는 제2대 타이 퐁(Thai Tong, 太宗)이 1034년 두 승려가 화장된 뒤 많은 사리가 발견되자 연호를 상서롭다는 의미의 통 투이(Thong Thuy, 通瑞)로 바꾼 것이라든가(『전서』 상 1984: 224), 제7대 까오 퐁(Cao Tong, 高宗)이 산하들에게 자신을 ‘부처’라 부르게 한 것을 들 수 있다(『전서』 상 1984: 224). 더욱이 제5대 턴 퐁(Than Tong, 神宗)은 1128년 응에 안(Nghe An, 乂安)에서 캄보디아의 침입에 대한 베트남의 승리를 불교와 도교의 덕분으로 돌렸다. 리 쑹 빈(Ly Cong Binh, 李公平)이 적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에 접한 그는 사찰과 도관(道觀)을 찾아가 감사의 예물의 바쳤다(『전서』 상 1984: 270).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교의 영향은 불교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었다. 그런 때문에 찌(Tri, 智) 선사처럼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일시 관직에 몸을 담았다가 불교에 귀의하는 이도 있었다(Nguyen Cuong Tu 1997: 192-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리 왕조의 문화’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으며, 그리하여 황실의 후원을 받았다. 일례로, 제3대 타인 퐁(Thanh Tong, 聖宗)은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나 유교도 신봉했다. 1070년 그는 베트남 최초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모신 문묘(文廟)를 세우고 사시(四時)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한편 그곳에 학교를 부설하여 황태자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과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게 했다(『전서』 상 1984: 245).

타인 퐁의 뒤를 이은 년 퐁(Nhan Tong, 仁宗) 때인 1075년에는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시험이 실시되었다. 몇 사람이 합격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합격자 중의 한 사람인 레 반 타인(Le Van Thanh, 黎文盛)이란 이는 후일 고위직에까지 올랐다. 이듬해에는 국자감(國子監)을 짓고 관원들을 선발하여 그곳에 보내 공부하게 했다(『전서』 상 1984: 248-249). 타인 퐁이 물러난 후 제위에 오른 년 퐁은 겨우

일곱 살이었던 때문에 친척이며 직책은 오늘날 총리 격인 평장군국중사(平章軍國重事) 리 다오 타인(Ly Dao Thanh, 李道成)의 도움을 받았다. 리 다오 타인의 도움 덕분으로 년 퐁은 위와 같은 개혁들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081년 리 다오 타인이 사망하자, 1085년에는 레 반 타인이 태사(太師)가 되었다. 이듬 해 년 퐁이 과거시험을 또 보아 그 합격자들로 한림원(翰林院)의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除授)하게 한 것은 레 반 타인의 조언에 의했을 것임에 틀림없다(『전서』 상 1984: 251; 『헌장』 n.d. 권 26: 2b). 과거시험은 12세기 후반 다섯 번 더 치러졌다(1152, 1165, 1185, 1193, 1195). 이는 이 왕조 200년 동안 일곱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선발된 인원은 적었고, 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위 행정직에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정 내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의 발언권이 없었다. 1127년 년 퐁이 사망한 후 뒤를 이은 툰 퐁과 그의 신하들은 유교가 정한 3년이 아니라 한 달만 상복을 입었다. 레 반 흐우는 새로운 왕이 너무 어려 아무 것도 모르는데, 조정 내에서도 이를 아는 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479년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를 편찬한 응오 씨 리엔(Ngo Si Lien, 吳士連)도 레 반 흐우의 비평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전서』 상 1984: 268; Whitmore 1976: 196). 사실상 많은 경우에 레 반 흐우와 응오 씨 리엔은 부적절한 궁중의례를 비판하면서, 이런 결합은 ‘적절한 유학교육을 받은’ 관리들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쩨 왕조도 건국 초기부터 불교를 장려하는데 적극적이었다. 1231년 찢 왕조의 실질적 창건자인 찢 투 도(Tran Thu Do, 陳守度)는 베트남 전역의 역정(驛亭)에 불상을 세우도록 하라는 조칙을 내리게 했다. 이는 상황(上皇)인 찢 트어(Tran Thua, 陳承)가 어렸을 적에 어느 역정에서 쉬고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 그의 용모를 보고 훗날 몹시 귀하게 될 분이라는 예언 때문이었다고 한다(『전서』 상 1984: 325). 한편 타이 퐁(Thai Tong, 太宗, 1225-1258)은 아들 타인 퐁(Thanh Tong, 聖宗, 1258-1314)에게 양위한 후 참선에 정진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아인 퐁(Anh Tong, 英宗, 1279-1293) 때까지의 모든 군주는 제위에서 물러난 다음 옌 뜨(Yen Tu, 安子) 산에 들어가 참선에의 정진을 일과로 삼았다(Nguyen Cuong Tu 1997: 342 n.48).

특기할 것은 제3대 년 퉁(Nhan Tong, 仁宗)에 의해 죽림파(竹林派)라는 선종의 개창이었다. 아들인 아인 퉁에게 제위를 물려준 후 년 퉁은 출가하여 불교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선종을 열었는데, 이는 순수한 베트남의 불교종파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이 새로운 선종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⁷⁾ 중세 베트남에서 선종을 확립시키려는 최초의 참된 노력이었다. 쩐 왕조의 불교는 년 퉁 치세에 가장 융성했으나, 그 이후로는 기울기 시작했다.

불교는 쩐 왕조의 군주들에 의해 적극 장려되기는 했으나, 불승들이 리 왕조 때만큼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다. 『안남지략』(安南志略)에 의하면, 불승에 대한 다섯 가지 직책, 즉 국사와 승통(僧統)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CL 2002: 489), 이들은 궁중에서 일상적인 문제에 간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해석은 국사의 거주지가 산사(山寺)였지 서울에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입증된다(『전서』 상 1984: 328). 이는 쩐 투 도가 쩐 왕조 종실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쩐 황족에 의한 과두정책을 택하고 외척의 정치 간여를 막으려 황실근친혼을 시행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그는 또한 중앙에 새로운 통치기구들을 만들고 지방행정제도도 재편하여 중앙권력의 강화를 꾀했다.

쩐 왕조는 1232년에 이미 첫 과거시험을 보아 새로 설치된 세 관직에 합격자들을 임용했다(『전서』 상 1984: 326). 1239년에는 두 번째 시험이 치러졌다. 이들 시험에서의 합격자는 아직 매우 적었으니, 1232년 시험에서는 5명, 1239년 시험에서는 4명으로, 모두 9명이 합격했을 뿐이다.

한편 타이 퉁은 1243년 국가감을 중수(重修)하게 하고, 1253년에는 국학원(國學院)을 설립하여 공자와 주공(周公) 및 이들에 버금가는 성인 72명의 조상(彫像)을 모시게 했다(『전서』 상 1984: 331, 336).

1247년에는 또다시 과거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이때는 51명이나 합격이 되었다(『전서』 상 1984: 333; 『헌장』 n.d. 권 26: 4a; 竹田 1966: 488).⁸⁾ 타이 퉁 치세인 1266년에 치러진 시험에서도 51명이 합격했다. 중국고전을 공부한 이들 합격자는 처음 중앙의 관직에 임명되고 차차

7) 죽림파는 3대 선사(禪師)로 그쳤다(Nguyen Cuong Tu 1997: 342 n.49).

8) 이때 시험에서 처음으로 장원(壯元)·방안(傍眼)·탐화(探花)라는 합격자의 등급이 생겼다. 레 반 흐우는 이 시험에서 2등인 방안으로 합격했다.

지방의 관직에도 임용이 되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은 낮은 직책에 임명되었을 뿐이고, 고위직은 전 황실의 친척들이 독점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합격자들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단지 전 황족을 도우며 서류를 정리하는 하급관리로서의 역할에 그쳤다.

과거출신 관리들은 1257년 몽골의 제1차 침입 이후 그들과의 접촉에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하는 상소문을 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하면 쿠빌라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인가 하는 힘든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황실을 도왔다. 어떤 이들은 한림원에서 몽골 황제의 조칙에 적절히 응대하는 글을 씀으로써 베트남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유교적 소양을 쌓은 관리들의 위치는 전보다 훨씬 두드러졌다. 『전서』에 따르면, 1267년 이들 중 몇몇은 그때까지 환관들이 맡았던 행견(行遣)의 직으로까지 승진했다(『전서』 상 1984: 345-346; Wolters 1979a: 78 및 1979b: 436). 행견은 황제에게 조언을 하는 직책이었다.

이들 관리는 결과적으로 전 왕조의 불교 옹호정책을 반대하고 새로운 통치규범을 찾기 시작했다(Wolters 1979b: 436). 예컨대, 레 반 흐우는 리 쑹 우언이 서울을 탕 룡(Thang Long, 昇龍)으로 옮긴 후 수도와 지방에 많은 사찰을 세우거나 중수한데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먼저 건립하지 않은 일은 잘못이었다는 것이다(『전서』 상 1984: 208-209). 그는 리 왕조의 까오 퐁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부처’라 부르게 한 것도 잘못임을 지적했다. 레 반 흐우의 비난은 그가 암암리에 불교를 배척하면서 유교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전서』 상 1984: 224; Yu 2006: 55).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베트남의 역사서에서 말하는 ‘유교적 가치’를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레 반 흐우는 불교도가 아닌 학자들을 가리켜 ‘유’(儒)라고 했다. 월터스(Wolters)는 그들, 즉 ‘유자’(儒者)가 정부정책을 입안할 때 유교적 가치를 옹호했다고 해서 ‘유자’를 ‘유학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고전주의자’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당시 베트남에서 유학의 고전들을 참

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고전을 읽은 것은 유학이념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터스는 주장하기를, 유학의 고전들은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안들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기록한 백과사전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Wolters 1979a: 75-85 및 1979b: 437).

1280년대 몽골의 두 차례 침입 후 이들 문사들의 영향력은 다시 쇠퇴한다. 대신에 전쟁의 영웅들인 쩐 황실의 왕자들, 예컨대, 쩐 꾸옥 뚜언(Tran Quoc Tuan, 陳國峻)이나 쩐 광 카이(Tran Quang Khai, 陳光啓) 등이 궁중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불교는 다시 상황인 년 퐁, 아인 퐁 및 민 퐁(Minh Tong, 明宗)의 옹호를 받아 활발해 졌다. 문사층의 영향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1306년 후옌 쩐(Huyen Tran, 玄珍) 공주와 참파 왕의 결혼에서 엿볼 수 있다. 유교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들은 그 결혼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인 년 퐁은 반대를 무시해 버렸다(『전서』 상 1984: 388). 그렇다곤 해도 쩐 왕조는 이들 문사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다. 예컨대, 1304년 조정은 29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시험을 치러 44명이나 되는 많은 합격자를 선발했고, 여타 응시자 330명은 서울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케 했다(『전서』 상 1984: 386; Whitmore 1987: 51). 그러나 합격자들이 관직에 임명되려면 관리들의 승진절차보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왕자나 귀족들의 호의가 필요했다. 막 딘 찌(Mac Dinh Chi, 莫挺之)나 쓰엉 한 씨에우(Truong Han Sieu, 張漢超) 같은 저명한 이들도 각각 쩐 익 딱(Tran Ich Tac, 陳益稷)과 쩐 흥 다오(Tran Hung Dao, 陳興道), 즉 쩐 꾸옥 뚜언의 문인이었다.

문사층은 1314년 민 퐁의 즉위와 더불어 정치무대에 재등장했다. 이때쯤에는 몽골과의 전쟁 영웅들이 사라져 갔고, 쩐 황실의 왕자들도 나이가 많아 능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Wolters 1979b: 436). 민 퐁이 즉위한 지 몇 달 안 되어 과거시험이 치러졌고, 더욱이 이듬해에는 유교도덕에 따라 부부 및 부자 사이의 고발이 금지되었다(『전서』 상 1984: 396). 1320년대에 들어서면 문사층의 등장은 더욱 두드러져, 『전서』는 쩐 조정 내의 저명한 인물 13명을 들고 있다(『전서』 상 1984: 403; Whitmore 1987: 53). 문사층은 조정에서 계속 주요 직책을 맡고,

1370년대 초까지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고전주의로부터 유교로의 전환기였던 것 같다. 문사층은 중국 제도를 모방해서 사회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했다. 쓰엉 한 씨에우가 박 장(Bac Giang) 성(省)에 있는 관엄사(關嚴寺)의 비문을 써달라고 청을 받았을 때, 그는 이단은 금지되고 성인의 도(道)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썼다(『전서』 상 1984: 427; Wolters 1979b: 446). 여기서의 이단은 불교를, 성인의 도는 유교를 의미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과의 충돌을 낳았다. 민 푹은 ‘백면서생’들이 남쪽 베트남에다 북쪽 중국의 방식을 요구한다면서 불평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국가에는 고유의 제도가 있다. 남과 북은 각각 다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전서』 상 1984: 429-430; Wolters 1979b: 444). 1370년 응에 푹(Nghe Tong, 藝宗, 1370-1372)은 즉위와 동시에 민 푹의 이러한 말을 이어받아 앞으로 모든 제도는 카이 타이(Khai Thai, 開泰, 1324-1329)⁹⁾ 연간의 것들을 따르도록 하라고 명했다(『전서』 상 1984: 439; Wolters 1979b: 444).

서로 다른 두 문화는 14세기 중반 제각기 존속하면서 별로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들이 새로운 문사층에 유리하도록 작용했다. 즉 왕자들의 장원 확대, 토지 없는 농민들의 증가, 불교의 타락 및 참파의 계속된 침입이 바로 그런 요인들이었다. 나약하여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응에 푹은 제위에서 물러나 상황이 되고는 외척인 호 꾸이 리(Ho Quy Ly, 胡季犛)에게 권력을 맡겼다.

호 꾸이 리는 일단 권력을 잡자 유학을 강조하면서 네 차례(1374, 1381, 1384, 1393)의 과거시험을 보았다. 1392년에는 자기 나름대로 유교고전에 대해 생각한 『명도』(明道) 14편을 지었다. 그는 여기에서 주공을 최고의 성인으로 삼고, 공자를 그 다음으로 생각했다. 9세기의 중국 시인 한유(韓愈)를 ‘도유’(盜儒)라고 부르고, 정호(程顥)·정이(程頤)·주희(朱熹) 등 송대 학자 7인은 박학하기는 해도 재주가 모자라고 표절에만 힘쓴다고 했다(『전서』 상 1984: 467-468; Whitmore 1985: 34-35). 이처럼 호 꾸이 리는 송대 학자들의 새로운 유학 해석, 즉 신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374년과 1384년 과거시험에서 각각 장

9) 카이 타이는 민 푹의 연호이다.

원으로 합격한 다오 쓰 틱(Dao Su Tich, 陶師錫)과 도안 쉰언 로이(Doan Xuan Loi, 段春雷)는 그 불가함을 논하다가, 전자는 강등되고 후자는 유배되었다(『전서』 상 1984: 468; Whitmore 1985: 35). 이 사건은 14세기 후반에 신유학이 베트남 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호 꾸이 리는 유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불교는 배척했다. 쩐 왕조의 고위 관리였을 때인 1396년 그는 승려와 도사를 대량 도태시켜 50세 미만인 자들은 환속시켰다. 그러는 한편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에게만 사찰이나 도관의 책임을 맡겼다(『전서』 상 1984: 470). 그해 말 『시경』(詩經)에 주석을 가한 『국어시의병서』(國語詩義并序)라는 글을 지어 후비(后妃)와 궁녀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전서』에 의하면, 그는 『주자집전』(朱子集傳)을 따르지 않고 서문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많이 가미했다고 한다(『전서』 상 1984: 471; Whitmore 1985: 41). 이에 더하여 과거시험에서는 신유학이 신봉하는 사서(四書) 대신 오경(五經)을 강조했다.

1400년 호 꾸이 리는 쩐 왕조를 빼앗아 자신의 왕조를 세웠다. 이전 왕조에서 주공의 역할을 하던 그는 이제 자신을 전설적인 순(舜) 임금과 연결시켰다. 1405년에는 과거시험을 치러 150명이라는 많은 수의 합격자를 냈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들 합격자들은 자신들 주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당대의 사건들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Whitmore 1987: 57).

호 꾸이 리 정권은 1407년 명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하고 이후 20년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명의 지배는 베트남에 신유학의 보급이라는 면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였다. 1407년 황복(黃福)은 포정사(布政使)로 부임하자 관리들에게 뛰어난 신유학자를 선발하여 유망한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도록 명했다(Whitmore 1985: 121). 1410년 중반까지 그가 세운 학교는 모두 161개교로 부학(府學)이 14개, 주학(州學)이 34개, 현학(縣學)이 113개였다(Aurousseau 1932: 107). 이들 학교로부터 선발된 우수한 학생은 공생(貢生)으로 중국에 보내졌다. 그들은 베트남으로 돌아와 관리가 되어 중국 지배를 도울 뿐만 아니라

중국 윤리와 이념으로 보다 더 무장되게 하는 것이었다(『전서』 상 1984: 511; Arousseau 1932: 107; Whitmore 1985: 125). 다른 한편 1419년 명 조정은 사서오경과 『성리대전』(性理大典) 및 여타 책들을 보내 베트남의 각종 학교에 보급해주었다(『전서』 상 1984: 517).

명의 의도가 어떠한 간에 그 지배는 베트남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저항은 1428년 마침내 베트남에 다시금 독립을 가져다주었다.

Ⅲ. 레 왕조의 창건과 유교이념

레 리이는 처음부터 유교를 지배의 전범으로 삼을 의도였던 듯, 관직을 문사들로 채우려 했다. 레 리이가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는 데는 응우옌 짜이(Nguyen Trai, 阮薦)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에 틀림 없다. 명나라 군대와 싸울 때 레 리이의 오른팔 역할을 한 그는 당대에 뛰어난 학자로, 1427년 레 리의 명을 받아 유명한 「평오대고」(平吳大誥)를 지었다. 응우옌 짜이는 나라에 봉사한다는 유교의 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16세기의 문필가인 응우옌 즈(Nguyen Du, 阮嶼)는 말하기를, 응우옌 짜이는 ‘충성스럽다’고 했다(Nguyen Du 1988: 219; Whitmore 1987: 58). 정말로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호 정권과 레 왕조 모두에서 관직에 있었다.

1426년에 이미 레 리이는 자기 지배하의 북부지역을 4도(道)로 나누고 문무 관리들을 임명했다. 그리고 1427년에는 한림원과 4도의 관리로 515명을 충원케 했다. 두 달 후에 그는 또 지방관들에게 ‘현량지사’(賢良之士)의 추천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전서』 중 1985: 530, 532, 535; Whitmore 1968: 9-10). 1428년 새로운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레 리이, 즉 타이 또(Thai To, 太祖)는 남부인 타인 호아(Thanh Hoa, 淸化)와 응에 안을 합쳐 해서도(海西道)로 하여 전국을 5도로 나누고 문무의 일을 모두 ‘행견’(行遣)이라 불리는 문관에게 맡겼다(『전서』 중 1985: 552; Whitmore 1968: 18-19).

중앙의 최고직은 대행견(大行遣)이었으며, 그 아래로 중서성(中書

省)·황문성(黃門省)·문하성(門下省)이 있었다. 이들 세 성은 인력의 부족 때문에 서로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며 상하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최고의 의사결정은 타인 호아 출신 무인인 개국공신들이 독점한 삼공(三公) 대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428년 타이 또는 서울 탕 룡에 들어가 위의 관직들이 정비되기도 전에 시급한 관리충원을 위해 친히 시험을 보아 32명을 뽑았다(『헌장』 n.d. 권 26:7b; 藤原 1986: 407). 1429년 그는 또다시 3품 이상 관원 모두에게 ‘현재’(賢才) 한 사람씩을 천거하도록 했다(『전서』 중 1985: 561; 佐世 1985: 25-26). 이러한 것은 타이 또가 문사들을 뽑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문사층에 대한 후원과는 대조적으로, 1429년 그는 모든 불승과 도사에게 6월 경전을 시험 보도록 명했다(『전서』 중 1985: 560; Lê Code II 1987: 170).

그러나 대부분 학자=관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도자에 봉사할 뿐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학자=관리 중의 하나인 판 푸 띠엔(Phan Phu Tien, 潘孚先)은 강조하기를, ‘태평’(太平)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강한 중앙정부와 전통을 유지해야 하며 급진적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전서』 상 1984: 429; Whitmore 1987: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학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타이 푹(Thai Tong, 太宗, 1434-1442)과 년 푹(Nhan Tong, 仁宗, 1443-1459)의 치세 하에서 볼 수 있다.

1433년 타이 또의 사후 타이 푹은 10살 때 제위에 올랐다. 이 시기에는 공자숭배와 과거제의 정식 채택 같은 두어 가지 유학 장려책이 있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타인 호아 무인들은 유교보다 불교를 신봉했다. 예컨대, 타이 푹이 어린 것을 이용하여 처음 권력을 잡은 레 쫓(Le Sat, 黎察)은 1434년 여름 가뭄이 들자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법운사(法雲寺)의 부처를 서울로 모셔오게 했다(『전서』 중 1985: 573). 레 쫓의 몰락 후 뒤를 잇는 레 응안(Le Ngan, 黎銀)은 집마다 관음보살을 모셔 놓고 황후인 그의 딸이 타이 푹의 총애를 받도록 빌었다(『전서』 중 1985: 602). 베트남 역사서에 의하면, 타인 호아 출신 공신들은 거의가 유학을 기피했고, 그 영향은 국자감의 감생(監生)들에게까지 미쳐 유교

고전의 공부를 게을리 했다고 한다(『전서』 중 1985: 593; 佐世 1985: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4년에 과거제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은 1438년 향시(鄕試)를 보고 이듬해 회시(會試)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모든 과거시험은 3년마다 보기로 했다(『전서』 중 1985: 577-578; 『헌장』 n.d. 권 26: 8a-b; 藤原 1986: 412-413). 이러한 일은 타인 호아 무신들이 아니라 흥 강 델타의 문신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결정은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타인 호아 무신들의 반대 때문이었지 않을까 한다(佐世 1985: 32; 八尾 2009: 174 n.34).

문신들은 또 유교를 통한 베트남사회의 교화에도 힘을 기울여 1435년에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이후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전서』 중 1985: 584). 1436년에는 『신간 사서대전』(新刊 四書大全)의 판각이 완성되어(『전서』 중 1985: 591), 신유학의 보급에 도움이 되었다.

레 왕조에서 첫 회시는 1442년에 치러져 450명의 응시자 가운데 33명의 진사(進士)를 배출했다.¹⁰⁾ 이때 레 조정은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를 세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워진 것은 1484년이였다(藤原 1986: 412-421).

타이 퐁의 문신 우대정책으로 인해 그는 불행한 운명에 부딪쳤다. 1442년 8월 동쪽지방의 순행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낀 박(Kinh Bac)의 동부에 있는 응우옌 짜이의 집에서 갑자기 병사했다. 위트모어의 견해에 의하면, 타이 퐁의 죽음 타인 호아 집단의 음모에 의한 것이었지 자연사는 아니었다(Whitmore 1698: 37-38).

타이 퐁이 사망하자 14개월 된 그의 셋째 아들이 즉위하니 이가 년 퐁이다. 나이가 어린 때문에 황태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또다시 타인 호아 무인들이 권력의 증추에 앉았고, 불교 또한 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448년 가뭄이 들자 법운사의 부처를 탕 룡에 있는 절로 모셔왔고 년 퐁은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전서』 중 1985: 615-616). 문신들이 황태후에게 절에서의 기우제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 응오 씨 리옌은 이 시험에서 진사가 되었다.

3년마다 과거시험을 보기로 한 1438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년 푹 치세 17년 동안 세 번(1448, 1453, 1458)만 치러졌을 뿐이다. 합격자 수도 줄어 1448년에는 27명, 1453년에는 25명이었고, 1458년에는 단지 4명에 지나지 않았다.

1459년 년 푹과 황태후는 년 푹의 이복형인 응이 전(Nghi Dan, 宜民)에게 살해되었다. 응이 전은 타이 푹의 장자로 년 푹에 앞서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홍 강 델타 출신임을 우려한 타인 호아 집단 훈구대신들이 교묘히 모략을 꾸며 타이 푹으로 하여금 모자를 제거케 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응이 전은 궁중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자 제위에 올랐다(Whitmore 1968: 33-35). 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쿠데타 후 홍 강 델타 출신들이 고위직에 많이 임명된 것은 사실이다.

일 년 후인 1460년 응이 전에 반대하는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다. 타인 호아 출신자들은 응이 전과 그의 공모자들이 이전 대신들을 살해했고 또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문란케 한 죄인들이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응이 전을 살해하고 타이 푹의 넷째 아들인 하오(Hao, 灝)를 황제로 추대했다.

레 타인 푹(Thanh Tong, 黎聖宗)으로 알려진 하오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의 하나였다. 레 타인 푹이 제위에 오르면서 이전 두 황제의 치세 중 소홀했던 유교에 대한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레 왕조나 또는 다른 왕조의 어느 황제보다도 유교를 존중했던 타인 푹은 베트남 사회를 유교적 가치와 윤리에 의해 변모시키려 했다. 그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禮)라고 믿고(『전서』 중 1986: 677) 베트남 사회를 ‘유교화’하는데 자신을 바쳤다. 그 결과 유교적 윤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관리는 승진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레 타인 푹이 왜 것처럼 유교적 가치를 존중했는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타이 푹의 넷째 아들로서 제위에 오를 가망성은 거의 없었고, 그리하여 유학교육에만 열중했다. 위트모어의 말을 빌리면, “그는 밤낮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한다(Whitmore 1968: 98). 레 타인 푹이 유교사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한 이유는 바로 그가 어렸을 적에 받은 이러한 유학공부의 영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타인 호아 출신들이 응이 전에 대한 쿠데타의 성공으로 그를 황제로 추대한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유학공부에 열중했던 그의 어렸을 적 배경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일 년 후 사원 과 도관의 건축을 제한한 칙령으로도 나타났다(『전서』 중 1986: 643).

레 타인 퐁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려했던 노력은 어렸을 적의 유학 공부 외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Yu 2008: 507). 그는 유교를 자기의 황제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레 타인 퐁은 타이 퐁과 년 퐁이 타인 호아 출신 훈구대신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을 똑똑히 보았다. 제위에 오른 그는 이들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자 황제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를 뒷받침할 이념을 유교의 ‘충(忠) 개념에서 발견했다. 사실상 그는 유교의 충과 효를 강조함으로써 황제권도 강화하고 유교적 가치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이룰 수 있었다.

15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도 레 타인 퐁의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었다. 이들은 타인 호아 출신들의 조정 내 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과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도전했다. 젊은 학자들은 동시대 명의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하는 동시에 원로들의 보수성과 전통적 제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공박을 가했다. 따라서 레 왕조 사회는 전례 없이 중국문화에 노출되었다. 1470년에 이르면 중국 문화는 베트남 국가를 변모시켰고 사회까지도 바꾸려 할 정도였다. 정치제도는 중국적 관료제를 채택했고, 신유학은 국가의 이념으로 완전히 확립되었다(Whitmore 1987: 58).

레 타인 퐁은 무엇보다도 유교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했다. 1462년 그는 과거응시자는 유교도덕을 충실히 지키는 자라야 된다는 칙령을 내렸다. 불효·불목(不睦)·불의(不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아무리 학문이 우수해도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전서』 중 1986: 645; 藤原 1986: 428-429; Yu 2008: 507).¹¹⁾ 그 이전에는 이러한 금지조항이 없었다. 언뜻 보기에 이런 칙령은 타인 퐁이 유교도덕의 실현을 위해 효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같이 보인다.

¹¹⁾ 불효·불목·불의는 타이 퐁 때 만들어진 『국조형률』(國朝刑律), 일명 『黎朝刑律』에서 가장 나쁜 죄악인 십악(十惡)에 중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금령은 부모에 효도하는 자는 군주에도 충성한다는 타인 통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실상 레 타인 통은 효와 충이 군주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 유일한 베트남 황제는 아니었다.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의 창건자인 자 롱 황제(Gai Long, 嘉隆帝)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실한 신하는 효가 충만한 집안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효는 임금에 대한 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大南寔錄』 1968, 正編 第1紀 권 49: 3a; Yu 2008: 508).

레 타인 통이 세운 또 다른 계획은 과거제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유교적 도덕사회는 유능한 관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치하에서 첫 시험은 1463년에 있었다. 당시 4,400명 이상의 응시자 가운데 44명이 합격했다(『전서』 중 1986: 647). 이처럼 많은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나이 많은 관리들을 대체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전해에 레 타인 통이 65세 이상의 관리들과 60세 이상의 감생(監生) 및 유생 등을 은퇴시키는 ‘문무관치사례’(文武官致仕例)를 정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전서』 中 1986: 646). 과거시험은 1460년대 두 번 더 있었는데, 1466년에는 27명, 1469년에는 20명이 합격했다. 세 번 시험의 합격자는 모두 91명으로, 이들은 관리로서 레 타인 통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되었다.

1466년 타인 통은 중앙의 관료제와 지방의 행정조직을 개혁했는데, 이는 위에서 논한 과거시험과 관련이 있다. 그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육부(六部)를 활성화시키고, 또 군사제도도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로 재편했다. 이들 개혁은 그때까지 막강하던 대신들과 대장군의 직을 명예화하여 권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일 년 앞서서는 응이 전이 설치한 육과(六科)를 개편하여 관련된 각각의 부(部)를 감독케 했다(『전서』 중 1986: 653; Whitmore 1968: 167).

레 타인 통은 또한 6도를 12승선(承宣)으로 세분하고, 각 승선에 도사(道司)·승사(承司)·헌사(憲司)를 두어 치안·행정·감찰의 임무를 맡겼다. 승선 아래의 행정단위로는 부(府)·주(州)·현(縣)을 두었으며, 이전 무인들이 담당했던 모든 지방관을 문인관리로 대체시켰다(『전서』 중 1986: 656-657; 『헌장』 n.d. 권 26: 12b-13a; 佐世 1985: 39).

이리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한 레 타인 통은 이제 유교윤리 강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 이는 1470년 연호를 광순(光順)에서 홍덕(洪德)으로 바꾼 사실로 알 수 있다. 실제로 그가 내린 첫 칙령은 3년 상(喪)에 관한 것으로, 자녀와 처는 각각 부모와 남편의 사망 시 3년 동안 상복을 입도록 했다(『전서』 중 1985: 677-678). 그는 1497년 사망할 때까지 유교윤리를 실현하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법령을 반포했는데, 이들 법령은 16세기 초에 편찬된 『홍덕선정서』(洪德善政書)에 수록되어 있다.

레 타인 통의 치세 때 서술된 역사서도 그의 신유학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응오 씨 리엔이 『대월사기전서』를 편찬할 때 그의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신유학의 역사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만일 국가가 적절한 유교윤리에 따라 통치되기만 한다면 왕조의 기반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잘 통치되려면 가족이 제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Yu 2008: 58).

이리하여 효는 응오 씨 리엔에 있어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1028년 3월 리 타이 또의 사망 후 리 타인 통이 제위에 오르며 한 달 후 자신의 연호를 제정하는데 대해 응오 씨 리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 년에 두 군주가 있을 수 없다.” 그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황제는 앞의 황제가 사망한 후 일 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전서』 상 1984: 217-218; Whitmore 1976: 195 및 1987: 60).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리 까오 통이 부왕(父王)의 사후 일 년 후에 연호를 바꾼 것을 매우 칭찬했다(『전서』 상 1984: 301).

응오 씨 리엔은 또한 쩌 황실의 족내혼(族內婚)을 몹시 비난했다. 리 왕조의 멸망을 가져온 외척의 정치 간여를 예방하기 위해 쩌 투 도는 권력이 다른 집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족내혼을 도입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오 씨 리엔은 쩌 황실이 족외혼(族外婚)을 무시한 것은 유교도덕에 대한 중대한 위배라고 했다(『전서』 상 1984: 335; Yu 2006: 60).

신유학의 윤리 옹호자로서 응오 씨 리엔은 신하는 어떤 경우에라도 군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979년 여섯 살의 딘 또안(Dinh Toan, 丁璿)이 왕위에 올랐을 때 레 호안이 황태후와 결탁하여 권력을

휘둘렀다. 이에 고위관리인 응우옌 박(Nguyen Bac, 阮匍)과 딘 디엔(Dinh Dien, 丁佃)이 반기를 들었다. 응오 씨 리엔은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 말하기를,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 때문에 ‘난’(亂)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했다(『전서』 상 1984: 184).

요컨대, 1470년에 이르면 신유학은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레 타인 동과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은 힘을 합쳐 그 이념에 따라 베트남 사회를 변모시키려 노력했다.

IV. 결론

흔히들 전근대 베트남은 유교국가였다고 한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전근대라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항상 ‘어느 시기’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교는 레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비로소 국가이념이 되었다. 1400년 전 왕조가 멸망될 때까지는 불교가 유교보다 영향력이 훨씬 컸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도 고려시대(918-1392)까지는 불교를 신봉하고 조선왕조에 들어와 유교사회로 바뀌는 것과 같다.

유교는 기원 3세기 초 베트남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향에 가리어져 있었다. 유교는 당 지배기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듯했지만, 아직은 불교의 영향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10세기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 왕조는 불승들의 도움으로 창건되었고, 따라서 군주들은 불교를 신봉했다. 리 왕조는 불승을 국사로 모셔 국가의 대사(大事)에 자문을 구한 때문에, “황제는 승려와 더불어 다스렸다.”는 말까지 생겼다(川本 1976: 264). 과거에 합격한 이들은 하위 관직에 임명되어 서류를 정리하는 정도였다.

전 왕조는 리 왕조보다 관료제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력은 전 왕조의 종실들 손에 있었고 불교는 여전히 융성했다. 13세기 후반 몽골의 세 차례 침입으로 문사들의 지위는 한 순간 높아졌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문사는 유학자라기보다 고전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유교의 영향은 1380년대 호 꾸이 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커졌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선진(先秦) 유학이었지 동시대의 신유학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공자보다 주공을 우위에 놓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제한하여 유학이 발전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호 꾸리 리 정권을 멸한 명은 베트남을 20년 동안 지배하면서 신유학의 보급에 노력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기 전에 명은 베트남인들의 저항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호 꾸이 리의 개혁과 명이 베트남 사회를 교화시키려는 노력은 30년에 걸쳤지만, 어느 쪽도 베트남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베트남 역사에서 유교가 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1428년 레 리이가 제위에 올라 자신의 왕조를 세웠다. 이는 왕조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배이념이 불교로부터 유교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왕조 초기부터 확고히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레 리이의 사후 뒤를 이은 타이 푹과 년 푹은 어려서 제위에 올랐다. 조정의 권력은 왕조 창건에 공을 세운 타인 호아 출신 무신들에 있었다. 이들은 비록 레 리이의 유교강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진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

유교, 특히 신유학이 지배이념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레 타인 푹이 제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는 자기에 앞선 군주들이 타인 호아 출신 공신들 앞에서 무력함을 보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레 타인 푹은 유교의 효와 충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15세기 중반부터 새로이 등장한 젊은 문사들은 레 타인 푹의 지위강화 노력을 지원해주었다. 이들의 생각은 이념이라든가 이상적 국가체제라든가 하는 면에서 앞선 세대나 무인들과는 달랐다. 새로운 문사층은 동시대 명의 제도를 귀감으로 삼고 이를 받아들여려고 했다.

마침내 레 타인 똥과 젊은 문사들을 협력하여 1470년까지는 신유학을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레 타인 똥의 새로운 연호, 흥득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긴 여정을 통해 신유학은 마침내 1470년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학이념이 그 후 베트남 사회를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켰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끝으로 한 가지 부언 한다면, 불교로부터 유교로의 이행이 15세기에 우리나라와 베트남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흥미롭다.

주제어 : 불교, 과거제도, 호 꾸이 리, 레 러이, 레 타인 똥, 응오 씨 리엔(吳士連).

참고문헌

- 『舊唐書』 1997. 北京: 中華書局
- 『大南寔錄』 正編 第1紀, 1968.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 『大越史記全書』 (전서) 3권, 1984-1986. 陳荊和 編校. 東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 『大越史略』 1987. 陳荊和 編校. 東京: 創価大學アジア研究所.
- 『三國志』 1983. 北京: 中華書局.
- 『新唐書』 1997. 北京: 中華書局.
- 『全唐文』 1983. 北京: 中華書局.
- 藤原利一郎. 1986. 『東南アジア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 川本邦衛. 1976. 베트남의佛教. 中村元 等編. 『아시아佛教史・中國編 IV』. 東京: 佼成出版社.
- 佐世俊久. 1985. 베트남黎朝國家の成立過程に關する一考察. 『史學研究』 167.
- 八尾隆生. 2009. 『黎初ヴェトナムの政治と社會』. 東広島市: 広島大學出版會.
- Aurousseau, L. (ed.). 1932. *Ngan-Nan Tche Yuan*[安南志原], Hanoi: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Gaspardone, Emile. 1934. "Bibliographie annamite."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34.
- The Lê Code: Law in Traditional Vietnam*. 3 Vols. 1987. Translated by Nguyen Ngoc Huy and Ta Van Tai.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 Lê Tac. 2002. *An Nam chi luoc*[安南志略, CL]. Hue: Nxb Thuan Hoa.
- Maspéro, Henri. 1918. "L'Expedition de Ma Yuan."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

- Nguyen Cuong Tu. 1997. *Zen in Medieval Vietnam: A Study and Translation of the Thien Uyen Tap An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guyen Du. 1988. *Truyen ki man luc*[傳奇漫錄]. Ho Chi Minh City: Nxb Van Nghe.
- Nguyen Ngoc Huy. 1980. "Lê Code des Lê: 'Quoc Trieu Hinh Luat' ou 'lois penales de la dynastie nationale'."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67.
- Nguyen Quang Ngoc, (ed.). 2000. *Tien Trinh Lich Su Viet Nam*[The Progress of Vietnamese History]. Hanoi: Nxb Gaio Duc.
- Phan Huy Chu. *Lich Trieu Hien Chuong Loai Chi*[현장] X-76. Tokyo: Toyo Bunk.
- Taylor, Keith W. 1983.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hitmore, John K. 1968. "The Development of Le Government in Fifteenth Century Vietnam." Cornell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Whitmore, John K. 1976. "Note: The Vietnamese Scholar's View of His Country's Early History." In *Explorations in Early Southeast Asian History: The Origin of Southeast Asian Statecraft*. Edited by Hall, Kenneth R. and Whitmore, John K. Ann Arbor: Center of South and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 Whitmore, John K. 1985. *Vietnam, Ho Quy Ly, and the Ming (1371-1421)*.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n Studies.
- Whitmore, John K. 1987. "From Classical Scholarship to Confucian Belief in Vietnam." *The Vietnam Forum* 9.
- Wolters, O. W. 1979a. "Assertions of Cultural Well-being in Fourteenth-Century Vietnam (Part On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0-2.
- Wolters, O. W. 1979b. "Historians and Emperors in Vietnam and China." In *Perceptions of the Past in Southeast Asia*. Edited by Reid, Anthony, and Marr, David. Singapore: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 Yu Insun. 2006. "Le Van HUU and Ngo Si Lien: A Comparison of Their Perception of Vietnamese history." In *Viet Nam: Borderless Histories*. Edited by Tran Nhung Tuyet and Reid, Anthon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Yu Insun. 2008. "Myth and Reality: The Confucian Influence on Northern Vietnamese Society during the Le Dynasty." Edited by Mantiene, Frédéric, and Taylor, Keith. Paris: Le Indes savants.

<Abstract>

The Road to Confucianism as a State Ideology in Vietnam

In Sun YU
Seoul National University
yuinsun@snu.ac.kr

This paper traces the process how Confucianism was established as a state ideology in Vietnam. Confucianism is said to have first been introduced into Vietnam around the early 3rd century. However, it had been outshone by Buddhism until the 1389s when Ho Quy Ly rose to power and emphasized pre-Qin Confucianism. In 1428, Lê Loi founded a new dynasty and changed the state ideology from Buddhism to Confucianism. Despite this radical shift, however, Confucianism was not firmly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Lê Dynasty. It was Lê Thanh Tong (1460-1497) who fully established neo-Confucianism as the state ideology. The reason was that he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Confucian texts from a young age and sought to strengthen his own royal authority by emphasizing the neo-Confucian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Key words : Buddhism, examination system, Ho Quy Ly, Lê Loi, Lê Thanh Tong, Ngo Si Lien.

